

맑시즘 · 유로커뮤니즘 · 社會福祉

李 洪 九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1.

오늘날 맑시즘의 影響이 미치지 않은 곳은 地球上에 없다. 따라서 맑시즘은 진정한 意味에서 世界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即 二次大戰이 끝난 後, 수많은 地域과 국가들이 맑시즘의 가치를 든 세력에 의하여 共產化되었다.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이루어진 동구라파의 共產化로 始作되어 北韓, 中國, 쿠바, 베트남을 거쳐 앙골라와 아프카니스탄의 赤化에 이르기까지 맑시즘의 깃발 밑에 움직이는 공산세력의 행장은 지난 30餘年 동안 世界 곳곳에서 계속 되어왔다. 이러한 맑시즘의 世界化란 상황 속에선 우리는 맑스가 독일 사람이며 19세기 중엽에 존재하였던 유럽의 사태를 西歐的 知性의 전통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해결하려 노력하였다라는 평범한 事實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맑시즘의 유럽的 根源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맑시스트 세력의 世界化란 現實이 맑시즘의 地域的, 文化的, 時代的 特수성에 대한 깊은 認識을 저해하고 있을 수 있다.

2.

그렇다면 맑시즘이 지닌 유럽的 특수성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맑스가 活動하였던 19세기 유럽사회가 지녔던 特性을 바탕으로 試圖될 수밖에 없다. 19세기 유럽은 近代化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유럽의 近代化란 첫째 르네상스로부터 비롯된 人間理性의 회복을 폐하는 집단적 노력이 계몽주의에 전파와 더불어 모든 市民의 意識속에서 作用하기 始作한 과정으로 理解될 수 있다. 둘째로, 유럽의 近代化란 產業革命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生產 및 經濟構造의 基本的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意識構造와 生產構造의 同時的 및 緊密적 變化가 가져온 結果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은

大衆의 出現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우에 「大衆」이란 어떤 特殊계층이나 계급의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구성원의 大多數란 뜻에서 使用되는 것이다. 따라서 大衆의 出現이란 中產階層의 成立, 그 뒤에 勞動계층의 확대라는 과정을 포함적으로 지칭한 것이다. 유럽의 近代化는 社會와 國家의 構成과 運營을 王權이나 貴族的 特權으로부터 國民的 및 大衆的 基本權으로 이양하는 과정이 있다고 性格지울 수도 있다.

國民主權과 大衆參與를 가지온 近代化의 核心的 規範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대답이 可能하나 유럽의 近代化가 가지온, 특히 大衆參與가 가지온 諸問題를 中心으로 생각한다면 「平等」을 核心的 規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國民主權과 大衆參與로 向한 폭발적 始發點이었던 프랑스大革命의 性格도 平等을 위한 革命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 그것은 新興 부르жу아階層에 의한 「身分的 平等」을 위한 革命이었다. 이미 社會, 文化, 經濟 등 여러 次元에서 實力を 강약한 中產層이 政治的 및 社會的 差別을 부르봉王家나 貴族들에게서 甘受할 必要는 없었다. 이렇듯 「身分的 平等」을 위한 中產層의 革命은 國民主權思想을 전파하였고 產業革命의 進展과 더불어 大衆의 出現을 가져왔다. 그러한 大衆이 國民으로서 지닌 核心的 規範도 「平等」이 있으나, 그 內容은 「身分的 平等」이 아니라 「經濟的 平等」이 있다. 產業革命이 가지온 貧困의 集中的 露出은 經濟的 平等을 大多數國民의 最大的 要求目標로 부각시켰다. 19세기 유럽의 社會현상은 產業化가 大衆의 經濟的平等을實現시키지 못한데서 말미암은 폭발적 不安을 안고있는 危機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危機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맑시즘이었다.

3.

產業化가 가지온 不平等의 解결을 目標로 主唱된 유럽의 이데올로기를 社會主義라고 할 수 있으며, 맑시즘은 적어도 二次大戰에 이르기까지 가장 成功의 社會主義 이데올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맑스보다 앞서 구상된 이른바 유토피아 社會主義나 그 後에 제기되었던 各種의 社會主義主流보다도 맑시즘이 世界的 이데올로기로서 決定的 位置에 서게된 것은 맑스의 理論의 體系性이나 說明度가 뛰어나게 높다는 理由도 있지만 유럽의 現實, 특히 產

業化가 가져온 세 現實의 性格에 대한 離隔한 認識을 바탕으로 하였다는意义上 말미암은 것이다. 이미 지적한대로 19세기 유럽은 平等을 指向한 國民主權과 大衆參與의 물결에 싸여 있었다. 그러한 물결은 結局 大衆의 參與와 福祉에 대한 欲求로 集約되어 오늘날까지도 훌려 내려오고 있다. 맑스는 우선 參與의 문제를 人間의 解放 또는 人間性의 회복이란 유럽적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화 하였다. 한편 福祉의 문제는 이른바 프로레타리아 革命을 통한 理想社會의 건설이란 급격한 행동주의의立場에서 그 해결책을 처방하였다. 19세기 중엽, 즉 大衆化의 첫 물결속에서 大衆의 行動規範으로 제시된 이데올로기로서 人間化와 福祉化를 同時에 實現시킬 수 있다는 맑시즘은 지극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參與도 福祉도, 即 人間化도 經濟的 平等化도 다 같이 그 實現을 可能케 하는 새 政治構造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맑시스트의目標를 達成시킬 수 있는 政治構造는 무엇인가? 이렇게 決定的으로 重要한 問제에 대하여 分明한 대답은 내리지 못한 것이 바로 古典的 맑시즘의 弱點이며 맑시즘의 해석을 둘러싸고 끝없이 계속되는 論爭의 불씨였다. 한마디로 맑스의 思想은 면밀하게 組立된 政治理論을 內包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른바 「프로레타리아 獨裁」란 막연한 유토피아的 솔로건은 될 수 있었어도 구체적인 黨治構造의 確立와 운영을 위한 青寫真은 아니었다. 앵겔스自身이 맑스의 死後 지적하였던 대로, 政治를 기본구조(structure) 위에 얹혀있는 加공구조(super-structure)라고만 강조한 것은 맑시즘은 決定主義(determinism)라고 못박아 버리는 不必要한 오해만 자아냈지 政治 그 自體에 대한處方은 오히려 저해하는 結果를 가져왔다.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獨裁」가 어떻게 유럽人の 意識속에서 希求되는 參與와 福祉를 實現시키는가에 대한 해답은 맑시즘의 宿題로 남은 채 20세기로 넘어올 수 밖에 없었다.

4.

맑시스트에 의한 革命과 政權의 장악이, 따라서 맑시스트 理論의 구체적 實驗이 十月革命의 結果로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社會主義의 展開過程에 몇가지 새로운 要素를 차아 내었다. 맑스의 理論이 옳다면 資本主義가 가장 발달한 英國 같은 나라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할 革命이 가장 後進國이

라 할 수 있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것은 그 理論의 不當性을 證明하는 것이라는 意見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그러한 意見의 타당성 與否는 別問題로 하고, 革命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맑시스트 革命이 유럽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注目하여야 된다. 유럽의 이데올로기로 發想된 맑시즘의 實驗이 非유럽的 社會에서 試圖 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를 非유럽的 社會라고 부르는 理由는 產業化의 後進性보다도 러시아 社會가 르네상스와 1848년의 事態라는 두가지 유럽의 경험을 갖지 못하였다는 歷史的 事實 때문이다.

아무튼 非유럽的 社會인 러시아에서의 맑시즘의 革命的 實驗은 두개의 새로운 次元에서의 문제를 만들어냈다. 첫째, 레닌에 의한 소비에트의 建立과 革命의 前衛隊로서의 黨에 의한 權力構造의 確立은 結局, 全體主義體制를 만들어 낸 結果가 되었다. 全體主義體制가 어떻게 휴머니즘에 입각한 大衆의 參與를 可能케 하는지는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모순의 문제인 것이다. 全體主義의 統治의 核心이 되는 黨의 組織이나 運營이 막연히 主張되어온 프로레타리아 獨裁라면, 맑스가豫言한 프로레타리아 獨裁는 휴머니즘의 終末에 대한豫言이 있었다고 밖에 생각될 수 없다. 둘째, 스탈린에 의한 이른바 一國社會主義論은 유럽의 맑시스트에게 國際共產主義革命의 基地를 가진다는 名分으로 非유럽의 全體主義體制인 소비에트에 對하여 絶對的 忠誠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한 忠誠이 어떻게 휴머니즘에 입각한 大衆의 參與와 福祉를 可能케 하는지는 그 누구도 說明할 수 없었다. 結局 유럽의 맑시즘의 러시아에서의 實驗은 맑스가 土臺로 삼고자 했던 유럽人の 參與와 福祉에 대한 꿈을 充足시키지 못하였음은勿論이려니와 가장 非人間의 全體主義體制를 만들어 냈다는 惡夢만을 남기고 말았다.

5.

二次大戰後의 유럽社會가 지닌 基本性格은 古典的 맑시즘이豫想하였던 것과는 너무나 別異한 것이다. 맑스와 앵겔스, 그리고 누구보다도 레닌이 強調하였던 유럽의 帝國主義의 性格은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맑스主義의 것 말을 흔드는 中國이 소비에트 帝國主義에 대항하기 위한 유럽과의 反帝國主義共同戰線을 제창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럽社會의 變貌를 劇的으로反映하는 것이다. 유럽의 資本主義가 이미 大衆的 資本主義와 全히 그 性格을 달

리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다. 유럽社會가 스탈린과 히틀러를 경험한 後 얼마나 強力한 反全體主義的 立場을 굳혔는가도 戰後의 유럽社會의 性格을 理解하는데 배놓을 수 없는 事實이다. 한편, 西歐의 民主國家들이 유럽 共同社會(E.C.)란 범유럽의 協力を 바로 參與와 福祉의 增大를 위하여 成功的으로 試圖하고 있다는 것도 戰後 유럽의 中要한 性格일 것이다. 이렇듯 새 性格을 지니게 된 새 유럽이 소비에트 全體主義體制나 그 壓制下에 구속되어 있는 東歐諸國에 대하여 혐오와 同情을 느끼고 있다 하여도 決코 過言이 아닌 것이다. 특히 1956년의 향가리事態, 1968년의 체고슬로바키아 事態등은 全體主義의 共產主義에 대한 幻想을 大部分의 유럽人의 意識속에서 셧어버리는 決定的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의 맑시즘에 대한 思考나 行動은 대체로 두 가지 새로운 方向을 모색하게 되었다. 첫째로, 유럽에서 비롯된 古典的 맑시즘의 立場을 러시아的 實驗과 分離시켜 새로이 해석하여 現代的 상황에서 그 意義를 찾자는 努力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努力은 맑시즘의 휴머니스트的 要素를 擴大解釋하려는 것이다. 둘째, 유럽의 맑시스트 가운데서는 러시아的 立場의 타당성을 거부하고 유럽的 맑시즘과 유럽공산당의 獨自路線을 開發 하겠다는 運動이 현저하게 일어났다. 유로카뮤니즘의 성격은 이러한 맥락에서理解되어야 하는 것이다.

맑시스트가 大衆의 參與와 福祉를 保障하는 方法으로 政治過程에서 權力을 集結시키는 가장 合理的 方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이미 戰前에 이탈리아 共產主義의 理論家인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등에 의하여 상당히 體系적으로 展開되었다. 그러나 두 世界大戰 사이에 存在했던 유럽의 不安定 속에선 각국의 共產黨이 어떠한 獨自的 路線을 擇할 수 있는 與件이나 餘裕가 存在하지 못하였다. 이미 지적한대로 戰後의 유럽이, 특히 1970年代에 들어와서 民主的 福祉社會로서의 기반을 견고하게 구축함에 이르려 西歐의 共產黨들은 그 存在理由를 새로이하기 위하여도 새 路線과 立場을 考察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面에서 본다면 197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西歐 最大的 共產黨들인 이탈리아 공산당과 프랑스 공산당이 유로카뮤니즘이란 새 간판을 들고 나선 것은 時代的 추이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적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社會民主主義의 전통이 確立된 유럽에서 공산당의 위치는 과연 어떻

개 면모할 것인가? 모호한 政治理論으로 全體主義化에 기여한 맑시스트 세력이 民主主義의 뿌리가 깊어진 유럽社會에서 아직도 活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유럽의 상황 속에서 지닌 可能性과 限界는 무엇인가? 이러한 一聯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19세기 以後 유럽社會의 近代化가 지녔던 基本目標로서의 平等이 오늘날 얼마나 實現되었는가를 正確히 理解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한다. 맑시즘의 將來도, 유로커뮤니즘의 性格도 한가지로 社會福祉의 현황과 연결시켜서만 論變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럽의 特性인 것이다.

<참고 문헌>

- Carrillo, Santiago. *Eurocommunism and the State* (Lawrence Hill & Company, 1978)
- Dougherty, James E. & Pfaltzgraff, Diane K., *Eurocommunism and the Atlantic Alliance*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en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Inc., 1977)
- Gramsci, Antonio.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edited and translated by Hoare, Quintin & Smith, Geoffrey Nowell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 Lichtheim, George. *Marxism in Modern Fra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 McInnes, Neil. *Euro Communism* (Beverly Hills, London; Sage Publications, 1976)
- Mandel, Ernest. *Critique de L'eurocommunisme* (Paris; François Maspero, 1978)
From Stalinism to Eurocommunism translated by Rothschild, John (Paris; François Maspero, 1978)
- Miliband, Ralph. *Marxism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Plamenatz, John. *German Marxism Russian Communism*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